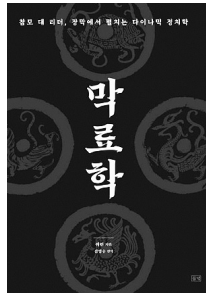


빼어난 참모 없이 성공한 리더는 없다

막료학

취원 지음, 김영수 옮김



“인재가 있어도 모르고, 인재가 있는 것을 알고도 쓰지 않고, 쓴다고 해도 중용하지 않으면 어찌 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큰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유방의 책사 소하는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했다. 그러나 유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신이 유방 진영을 빠져나가자 소하는 그를 쫓아가 설득해 데리고 돌아온다. 그리고 소하는 유방에게 “대왕께서 한중(漢中)에만 동지를 틀고 있으려면 한신을 기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지만 천하를 얻으시려면 한신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직언했다. 유방은 소하의 말대로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한다.

초나라 항우와 천하패권을 두고 자웅을 겨루던 유방은 기원전 202년 마침내 한 왕조를 세웠다. 동네 건달에서 황제가 된 유방은 천하를 얻은 원인으로 ‘삼불여’(三不如世 사람만 못하다)를 들었다. 세 사람은 바로 유방을 도와 천하를 제패하는데 큰 공을 세운 ‘서한삼걸’(西漢三傑), 막료(참모) 소하·장광·한신을 지칭한다.

이에 대해 ‘막료학’ 저자인 취원은 “항우와 유방 사이의 ‘초한 쟁패’는 인재전쟁이었다”면서 “유방은 평범한 평민출신으로 피바람이 불어치는 혼란기에 자기보다 훨씬 강한 항우와 싸워 이겼다. 이는 그가 천하대세에 순응했다는 점 외에 인재들을 제대로 기용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중국에서 유래된 ‘막료’(幕僚)라는 호칭은 낯설다. 요즘으로 치면 참모, 스태프에 해당한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5000년 가까운 중화 문명사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중국만의 독특한 ‘지모문화’(智謀文化)의 발전



사기 200년께 천하통일을 꿈꾸는 위·촉·오 대결을 다룬 영화 '적벽대전' (감독 오우삼).

사이며, 그 역시 ‘모’(謀) 한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투쟁에 참여한 각종 이익집단을 이끄는 핵심부를 ‘막부’(幕府)라 부르고, 이 핵심부를 이끄는 중심인물, 다시 말해 최종 정책결정권을 쥐는 인물을 ‘막주’(幕主)라 부르겠으며, 이와 상응하여 ‘막주’를 보좌하는 인물을 ‘막료’(幕僚)라 부르겠다”고 설명한다. 역자인 김영수 박사는 서문에서 “이 책은 이런 인재 ‘막료’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서이자 통속적인 대중역사서”라며 “역사가 핵심으로 짙은 경쟁-지모-막료를 막부-막주-막료(막료-막주-막부)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이 책은 한결 쉽고 살갑게 읽힐 것이다”고 밝힌다.

‘참모 대 리더, 장막에서 펼쳐는 다이나믹 정치학’이라는 부제를 붙인 ‘막료학’은 ‘막부와 막료’ 등 크게 6편으로 구성돼 있다. ‘삼국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유비-제갈량을 비롯해 환공-관중-포유 등 중국 역사에

깊게 새겨진 막주와 막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1000여 쪽에 담겨있다. 복숭아 두 개로 세 장사를 죽게 만든 ‘이도살삼사’(二桃殺三士)의 제나라 안영, 제갈량이 구사한 ‘초선차전’(草船借箭)을 활용해 금나라 군대를 막아낸 남송시대 필재우 등 많은 막료들의 활동상이 흥미롭다. 송나라 태조(조광윤)가 눈내린 밤에 홀로 조보를 찾아가 국경운

영에 대한 자문을 구한 ‘설야정책’(雪夜定策) 일화는 뛰어난 각료와 참모가 절실한 요즘 우리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저자는 ‘인재통제 7원칙’과 ‘막료의 6원칙’을 제시한다. ‘막료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저자는 “역사상 위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발판이 되었다면 많은 막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군신들의 스토리는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일상의 처세까지’ 두루 응용될 수 있다. 요즘처럼 리더와 참모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진투구(泥田鬪) 정치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사마천의 ‘사기(史記) 전문가인 역자 김영수 박사는 ‘오십에 읽는 사기’ 등 60여 권의 저술·번역과 인문학 강좌 등 역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9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행복공부-나의 파랑새를 찾아서=경제학자의 목소리로 듣는 행복 수업.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내용을 강의하며 축적된 ‘행복해지는 방법’을 담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삶의 아이러니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삶의 의지를 가져야 함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를 인용해 독자들이 어제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와 만나기를 권한다. 〈생각의힘·1만9000원〉

▲작가와 연인들=젊은 여성 예술가 케이지 피보디는 개를 산책시키고 글을 쓰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자금 대출과 빚,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연인과의 이별 등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6년간 완성하지 못한 소설 작품이다. 그러던 어느 날 혼란스럽던 그녀의 삶에 유명작가 ‘오스카’와 작가지망생 ‘사일러스’가 끼어든다.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 앞에서 예술가의 작품은 완성될 수 있을까. 〈문학동네·1만6800원〉

▲나는, 그냥 내가 되고 싶어요=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조그만 꿈’을 지니기를 제안한다. 커져가는 ‘사랑’을 ‘타구공’에, 모든 것을 품는 ‘지구’를 ‘꽃병’에 빗대는 참신한 비유도 재미있다.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을 위무하는 청소년 시를 테마로 현

행복 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 김희삼



직 국어교사인 하상만 시인이 내태주 시인의 작품 중 ‘사랑’, ‘희망’, ‘가족’, ‘꿈’ 등이 모티브가 된 시편을 선별해 수록했다. 〈쉬는시간·1만2000원〉

▲속는셈,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10대 여성 캐릭터 9등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청소년문화의 감수성을 담았다. 주인공은 ‘늑두’, ‘차미’, ‘오랑’과 고양이, 곰 젤리인데 이들은 한데 모여 동물을 괴롭히는 이들에 맞서거나, SNS에 만연한 타인 혐오문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친구들은 보폭을 맞춰 한 우산을 셋이 나눠 쓰는 우정 가득한 이야기를 펼친다. 〈꿈꾸는돌·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도 어깨를 두들두들=방귀쟁이 뱀미와 몸에서 꼬순내가 나는 꼬순이, 사랑에 푹 빠진 사랑꾼 금순이부터 MZ세대 회사원 아가씨까지 네 캐릭터는 사랑스러운 외형과 성격을 가졌다. 부제 ‘내가 방귀를 뀌어도 나는 네 편이야’처럼 이들은 일상에서 서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며 연대와 우정의 참모습을 가르쳐준다. 〈위즈덤하우스·1만7500원〉

▲또 만나요, 달팽 씨=우렁각시의 후손 달팽 씨는 참새택시에서 떨어져 학교 화단에 안착한다. 마법이 깃들었던 껌데기에도 금이 간 달팽 씨를 발견하고 윤이는 반창고를 붙여 준다. 달팽 씨는 보답으로

달팽이 놀이동산 ‘달스랜드’에 윤이를 데려다준다. 그곳은 왕지네 롤러코스터와 비눗방울이 가득한 아름다운 동심의 공간이다. 〈책읽는곰·1만4000원〉

▲비스킷=주인공 성재성은 청각 과민증, 공포증, 강박증을 가진 청각 장애인이다. 소음을 들으면 공간을 답답하게 느껴거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한다. 그와 동시에 ‘비스킷’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도 생겼다. 존재감이 없어 세상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스럭기’부터 반으로 쪼개진 ‘비스킷’까지. 이들을 마주하며 재성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 나간다. 〈위즈덤하우스·1만4800원〉

명예욕? 후원자 찾기? ...거장들은 왜 작품 속으로 숨어들었나

그림 속으로 들어간 화가들

파스칼 보나푸 지음, 이세진 옮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꼭’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기증’, ‘새’, ‘열차 안의 낯선 자들’ 등 작품 속에서 그를 찾는 재미는 쏠쏠하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도 마찬가지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를 비롯해 ‘휴고’, ‘코미디의 왕’ 등 많은 작품에 카메오로 등장했다.



화가들은 어땠을까. 그들 역시 작품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놓고는 했다. 수많은 인물 군상을 틈 사이에 보일듯 말듯 숨어있기도 하고, 마치 작품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소설가, 전시기획자, 미술사학자로 활동중인 파스칼 보나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간 화가들-위대한 화가들의 은밀한 숨바꼭질’은 작품 속에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화가들의 꿈과 야망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은 ‘신화와 현존’, ‘죄와 기도’, ‘역사와 우화’, ‘만남과 환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그림 속 화가들’을 살펴본다.

30년간 스페인 왕실화가로 활동했던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시녀들’에는 마르그리타 테레사가 시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과 함께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는 벨라스케스가 자리잡고 있다. 팔레트와 붓을 들고 모델들을 바라보기 위해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걸린 대형 작품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804년 12월2일 거행된 나폴레옹 1세 대관식’에는 크로키 화첩을 든 검은 옷 차림의 작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모습이 등장한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이 거행

될 때 다르크의 뒤에 갑옷을 입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작품 ‘샤를 7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잔 다르크’를 남겼다. 또 강렬한 작품 ‘골리앗의 목을 든 다윗’에서 목이 잘린 골리앗은 작가 자신인 카리바초의 모습이며 ‘위험한 요리사들’에서 접시 위에 올려진 잘린 머리 역시 화가 제임스 엔소로의 것이다.

겨울이나 공, 액자 속에 비친 화가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안 반 에이크의 작품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 조반나 체나미(일명 아르놀피니 부부)’에서 화가는 벽에 걸린 겨울에 비친 두 사람 중 한명으로 추론된다. 또 피터르 클레즈는 ‘크리스탈 공이 있는 바니타 스와’, ‘유리공이 있는 정물화’에 등장하는 ‘공’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도록 했다.

저자는 화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잠재적 후원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모와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작품에 ‘비밀스럽게 숨어들어간다’고 말한다. 〈미술문화·2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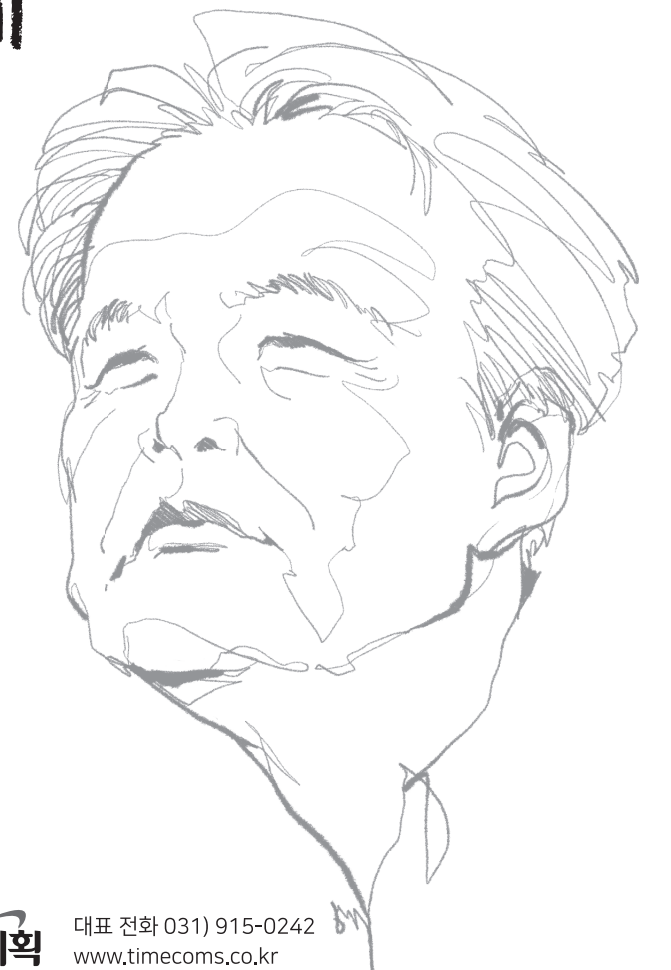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